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회장 Chairman | 노기호 No Ki-ho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
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한국의 화학산업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

현재 한국의 화학산업은 미래에 대해 극단적인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측면은 정보전자소재, 나노화학, 생명공학 및 첨단복합재료 등을 언급하면서 화학산업이 현재의 물질문명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얼마나 무궁무진한 발전과 편익을 인류에게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은 화학산업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오존층 파괴와 공해문제를 야기시키며,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 등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화학산업 작업환경의 보건·안전문제를 함께 언급하면서 화학산업을 대표적인 3D 산업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국민의 인식 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화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불행한 현실이며,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화학산업의 미래 기술자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더욱 심각하게 표면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학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활 편리성이 강조되면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개도국에서는 의식주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기반산업으로 화학산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화학산업은 왜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인도 보팔사고 이후 '80년대 중반부터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기업 경영에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환경 안전·보건의 문제가 성장 논리에 가리워졌던 점을 일정부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sponsible Care 운동은 그들에 있던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 개선운동을 양지로 끌어내고, 최고 경영진에서 공장 오퍼레이터와 화학제품의 화물 운전자까지 화학산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화학산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산업으로 변신시키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우리 업계에 종사하는 종업원 개인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고, 크게는 한국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

1999년 한국 화학산업에서 Responsible Care 운동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우리 협의회는 금년 2/4분기를 지나면서 한국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의 개선을 향한 긴 항해를 시작할 기초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금년에 4대 업무과제를 ①회원사의 실행지침 확정 ②RC 이해와 정착을 위한 설명회 개최 ③RC 로고의 사용기준 확립 ④회원사와 협의회간 정보교류 채널 확립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중 실행지침(4대 코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내용을 최종 정리하여 배포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여천, 울산에서 각각 ‘Responsible Care 설명회’를 개최하여 RC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회원사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RC 로고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확정, 금년 하반기부터는 회원사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회원사와의 실시간 정보교류와 대화를 위하여 금년 3월부터 Homepage를 운영하고 분기별 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Responsible Care 운동에 대해 “What(RC가 무엇인가)”과 “Why(왜 해야하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How(어떻게 실천할까)”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하반기는 업계 전문가 집단이 작성하고 협의회에서 정리한 RC 실행지침과 매뉴얼을 가지고 각사에서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각사의 실정에 적합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완결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회원사 최고경영진의 전폭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공장에서도 RC 운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RC 코디네이터 또는 환경안전 담당자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화학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Responsible Care 운동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실천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한국Responsible Care협의회

회장 노 기 호

RC의 역할과 발전방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방용석
President Bang Yong-seok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오늘날 화학산업은 인간의 생활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기아, 질병 및 의식주에서 운송, 레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문명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화학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과 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일어난 다이옥신누출사고와 1984년 인도의 보팔에서 일어난 메틸이소시안 유독가스 누출사고 등 일련의 사고는 화학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화학산업계에서는 화학제품 및 제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화학제품을 개발단계에서부터 제조, 판매,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에 걸쳐 안전·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여 안전, 환경, 보건 대책을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 및 정보교환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인 Responsible Care(RC)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화학업계에서도 정부의 법적 규제를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안전·환경 및 보건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RC협의회를 창립하고, 2000년 9월 20일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총회에서 4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RC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RC운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화학업계와 협력증진의 계기가 되는 한편, 국내적으로 화학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이를 매우 환영하며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삶의 질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날 안전, 환경문제의 해결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RC활동과 같이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하여 자발적인 목표를 수립,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체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며, 아울러, RC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화학산업의 안전환경보전에 대한 개선 노력을 전 세계에 알려 국가위상강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IMF이후 컨설팅사에서 국내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의 실질가치로서 재무구조와 함께 안전, 환경분야를 주요한 가치산정 기준으로 포함한 사례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익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RC 활동을 통해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만이 화학산업이 굴뚝 산업으로서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학산업에 대한 제반 규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안전, 환경, 보건관련 법규나 협약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무역과도 연계되는 추세로 미루어 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C활동이야말로 화학산업 앞에 놓여진 각종 장애물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율안전관리체계인 SMS(Safety Management System) 및 품질·환경·안전시스템(ISO 9000, ISO 14000, KGS 18000)을 통하여 원활한 RC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도 RC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RC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6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방용석

We promise you a better
and cleaner World for
tomorrow

공정안전 실행지침 채택

2001. 5. 10. 2001년도 제1회 이사회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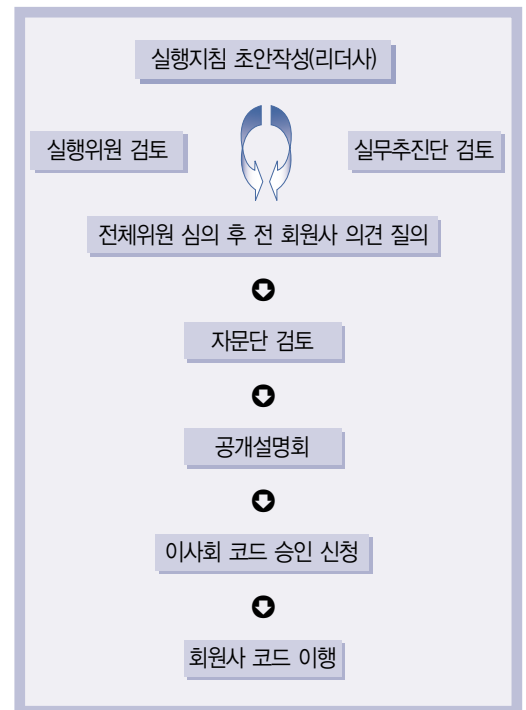
KRCC의 4개 코드 중 공정안전 실행지침이 이사회 서면 의결을 통해 확정(5.10)되었다. 실행지침 및 체크리스트 작성은 올해 협의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오염방지, 산업보건, 비상대응 등 나머지 3개 실행지침은 현재 관리항목과 평가기준 초안 작성을 완료, 승인절차를 거쳐 7월 중 배포 예정이다. 4개 분야 중 처음 시도된 관계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최종 채택되기까지 공정안전 실행지침의 작성 과정과 구성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실행지침 추진 과정

- 공정안전의 경우

- 공정안전 실행지침 1차 회의(2000. 6. 16)
 - Responsible Care 실행지침 작성 준비 회의
 - ACC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작성하기로 결정.
- 공정안전 실행지침 2차 회의(2000. 7. 21)
 - 한화석유화학, LG화학, SK에서 각각 초안을 제출,
 - 3개 초안을 바탕으로 “공정안전실행지침(안)” 완성.
- 공정안전 관리항목 조정(2000. 8. 10월)
 - 용어 및 문구 수정
- 공정안전 실행지침 3차 회의(2001. 2. 9)
 - 평가기준 및 체크리스트 형식 결정
 - 공정안전 17개 관리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검토(리더사: 삼성중합 화학)하고, 회원사 공통으로 사용할 체크리스트 형식 결정.
- 자문단 및 공정안전위원회 검토
 - 2001. 2월 3월
 -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의 자문과 공정안전 위원들의 3차에 걸친 의견 수렴.

실행지침 채택 과정



- 실무추진단 최종 검토 및 전체 회원사 의견 수렴
 - 실행지침 작성 관련 업무회의
 - 세부사항 최종 검토, KRCC 공정안전 실행지침(안)으로 작성 완료.
- 2001. 4. 16. 2001년도 제1회 이사회 안전 상정, 승인.
- 2001. 6. 공정안전 실행지침 회원사 배포

2. 실행지침 구성 내용

- 목 적
 - 공정안전 실행지침의 목적, 원칙, 중점 사항 등을 설명함.
- 기본방침과의 관계
 - 공정안전 지침의 실행이 Responsible Care 기본방침 달성에 도움을 주는 사항을 설명함.
- 관리항목
 - 공정안전 실행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17개 관리항목 기술.
 - 1) 경영자의 참여
 - 2) 목표의 설정
 - 3) 성과의 측정
 - 4) 사고조사
 - 5) 공정안전정보의 문서화
 - 6) 안전설계제작설치검사의 표준화
 - 7)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정보화
 - 8) 위험성 평가
 - 9) 공정/설비의 변경관리
 - 10) 법규 및 기준의 준수
 - 11) 가동 전 안전점검
 - 12)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 13) 안전운전절차의 표준화
 - 14) 비상조치계획 수립
 - 15) 안전작업허가 관리
 - 16) 교육훈련 (직무능력배양/기술력 향상)
 - 17) 협력업체의 관리

We promise you
a better and
cleaner World for tomorrow



Responsible Care 로고마크 기준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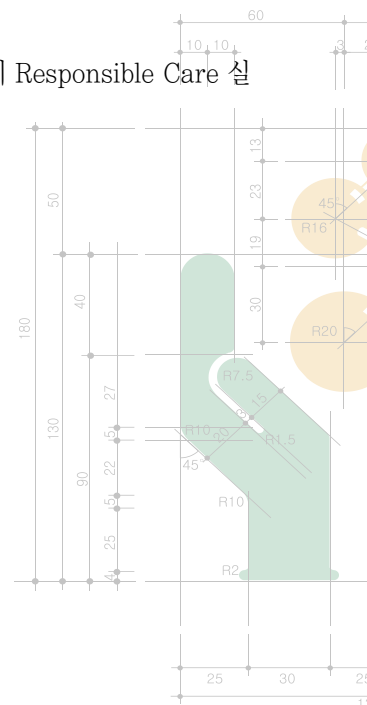
2001. 3. 7. 제2기 정기총회

지난 3월 7일 제2기 총회에서는 Responsible Care 실천에 대해 단일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대내적인 결속과 대외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Responsible Care (리스판서블 케어) 로고마크 및 사용 기준을 채택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Responsible Care 로고마크는 전체적으로 국제화학단체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ICCA) 산하의 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RCLG)에서 관리되나,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특색을 가미한 고유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RC협의회는 회원사의 의견 수렴 결과, 분자를 인간의 양손이 감싸고 있는 형상을 통해 화학산업의 인류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기본형태에, 한국적인 느낌의 마크 색상을 가미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분자 부분은 노란색이 포함된 주황색으로 정하고, 분자를 감싸고 있는 양손은 녹색으로 하였다. 노란색이 포함된 주황색(Yellow deep)은 주목도가 높은 색으로서 화학산업의 안전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을날 우리 들판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주는 풍요로운 정경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또한 녹색은 자연과 환경을 상징하는 색으로서 Responsible Care 운동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이다.

로고마크는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후 현재 일러스트 파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으로 회원사들이 Responsible Care 실행 수립 계획 등을 협의회에 제출한 후 전 회원사가 로고마크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Responsible Care 순회 교육 설명회

- 4월, 5월, 6월 -

협의회는 2001년 사업의 주요 목표인 RC 홍보 및 담당자 교육 설명회 추진을 위해, 서울을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화학 공장이 밀집해 있는 여수, 울산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Responsible Care 추진 사례 소개 (2001. 4. 27. 서울 설명회)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첫 설명회는 환경안전 관련 실무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RC를 사업장에서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라는 주제 하에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롬엔드하스코리아 김동균 전무와 바이엘코리아의 김범 이사는 RC를 도입하게 된 경위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관리 등 RC추진 경험과 실천방법을 소개하였고, 공정안전 소위원회 리더사인 삼성중합화학의 윤춘석 팀장은 공정안전의 17개 관리항목과 70개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사의 환경안전관리 체계에 공정안전 분야를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실행코드와 체크리스트 관리 교육(2001. 5. 25. 여수 설명회)

두 번째 설명회는 전남 여수시에서, 70여 명의 환경안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RC 실행코드와 체크리스트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설비센터의 이창규 소장은 축사를 통해 화학산업에서 R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다우케미칼의 황무영 이사와 한국다우코닝의 김범대 RC담당자는 기준작업시간당 재해율 감소와 배출량 50% 감축과 같은 목표의 설정과, 코드별로 구성된 자

체평가단 운영,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등 RC 실행 및 관리 경험을 설명하였다. 한편 오염방지 소위원회 리더사인 카프로의 오효선 부장은 오염방지 지침의 작성 과정 등을 설명하고, 14개 관리항목과 43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날 참석자들은 질의 응답시간에 발표자들과 RC 실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자체 평가 및 개선 방향 연구(2001. 6. 22. 울산 설명회)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순회설명회의 주제는 “RC 실행에 따른 평가와 분석”으로 정하여 개최되었다. 노기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RC 활동을 통해 화학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RC 실천을 당부하였다. 듀폰의 이재곤 부장과 한국바스프의 김경옥 부장은 단계별로 구성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해당 지침을 점수로 환산하여 Radar Chart를 작성하고 연도별 평가결과를 분석하는 방법 등 자사의 RC 실행 평가방법을 자세 히 소개하였고, 비상대응 소위원회 리더사인 호남석유화학의 이형식 과장은 그 동안 진행되어온 비상대응 10개 관리항목 및 35개 평가기준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Responsible Care 추진 사례

한국바스프주식회사



상무이사 | 양덕용
Managing Director Yang Duck-yong
한국바스프(주) | 전략기획실
BASF Company Ltd.

화학산업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된 가스누출 사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입증한 사례가 되었으며, 이 사고를 계기로 사회는 화학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의 고조는 화학산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화학산업은 사활을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관심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화학산업은 Responsible Care(RC)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게 되었으며 바스프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적극 동참하여 본격적인 RC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1. 회사개요

한국바스프주식회사(대표 류종열 회장)는 독일계 글로벌 종합화학회사인 BASF의 100%자회사로 한국바스프우레탄주식회사(전 한화바스프)와 한국바스프스티레닉스(전 효성바스프) 및 바스프코리아 등 3사가 합병함에 따라 '98년 12월 출범한 한국내 대표적인 외국투자 기업이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하여 3개 지역(울산, 여수 및 군산)의 4개 공장에 1,04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의 45%는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 공장 현황

공 장	인원(명)	제품및생산능력(톤)	주 요 용 도
울 산 유화공장	268	ABS : 200,000 PS : 212,000 EPS : 70,000	자동차, 전기전자 및 완구 내외장재 일반용 및 고충격 폴리스티롤 단열재, 완충재 및 포장재
울 산 화성공장	110	PTHF : 30,000 BDO/THF : 50,000 Polyol : 30,000	스판덱스 섬유 폴리우레탄/용제
여수공장	169	MDI : 100,000	건축자재, 단열재, 시트쿠션, 합성 목재, 자동차 내장재, 범퍼, 볼링볼, 스포츠 트랙, 스키플레이트, 합성 피혁, 탄성섬유, 냉장고, 전선코팅, 도료 및 접착제
군산공장	200	Lysine : 90,000	동물사료, 효소제, 카로티노이드

* 본 란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RC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 사례를 통하여 RC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무순으로 회원사를 선정, RC추진 내용과 경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Responsible Care 추진 과정

1998년12월 31일, 3개사가 한 회사로 통합된 후 “One Company Culture”라는 기치 아래 ‘99년부터 시작된 조직, 제도 등의 통폐합 작업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실시 1년만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품질, 환경, 안전보건과 같은 경영시스템의 통합은 이런 작업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듬해 3월부터 전사적인 RC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은 당사가 RC를 추진해온 주요 과정이다.

- 1999. 3 RC활동 촉진을 위한 Kick-off meeting 실시
- 1999. 5 RC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조직 구성
- 1999. 7 자체평가표(Self assessment checklist)작성
- 1999. 8 전 공장 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표의 문제점 개선 및 평가기준 통일
- 1999. 9 자체평가 재실시, MSDS 토의
- 1999. 10 MSDS 및 RC실행절차서 작성
- 1999. 12 종업원 대상으로 RC 교육, 2000년 RC추진계획 작성, 자체평가표 개정
- 2000. 1 1999년 RC추진실적 검토
- 2000. 6 2000년 상반기 RC추진실적 검토
- 2000. 8 전 공장 자체평가 실시
- 2000. 10 자체평가표 개선방향 토의
- 2000. 12 2000년 RC추진실적 검토 및 2001년 추진계획 작성
- 2001. 1 2001년 QM&EM통합심사 결정
- 2001. 5 RC내부감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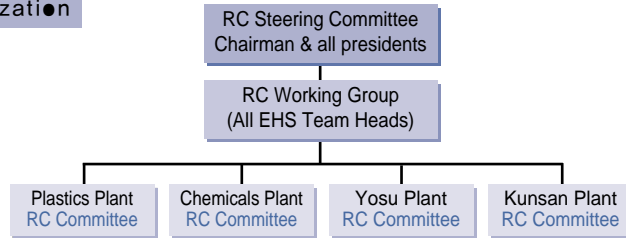
3. RC추진조직

RC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9년 5월 회장 및 사장단으로 구성된 전사적인 RC추진위원회(RC Steering Committee)및 각 사업장의 환경안전부서장으로 구성된 RC실무그룹(RC Working Group)을 조직하였으며, 각 사업장은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RC위원회(Site RC Committee)를 조직하였다.

■ RC 추진조직

RC추진위원회는 RC방침 검토 및 승인, 연간/중장기 RC추진 계획 및 실적을 검토 및 승인하며, RC실무그룹은 RC추진을 위한 전사적인 절차서 작성 및 기준 수립, 사업장별 자체평가 지원, 자료수집, 교육훈련, 내부감사, 계획 및 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장RC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RC자체평가, RC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RC 추진조직 | RC Organization



4. 추진실적

2년여에 걸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환경 및 안전보건 부문에서 다양한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하였고, 전 생산 제품 및 사용원료에 대한 MSDS, 제품취급절차서, 비상대응절차서, 안전작업허가,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및 보건위생 등의 각종 환경 안전보건 관련 제도 절차 및 자료 등을 구비하였다.

■ 인증현황

공 장	환경 부문	안 전 보 건 부 문		
	(ISO14001)	(KOSHA2000)	OHSAS18001	KGS18001
유 화 공 장	1999. 5. 26	2000. 2. 23	2001. 5. 30	2001. 6. 25
화 성 공 장	2000. 11. 22	2000. 2. 24	2001. 5. 30	2001. 6. 25
여 수 공 장	1998. 4. 28	2000. 5. 17	2001. 3. 30	2001. 4. 17
군 산 공 장	2002년 예정	2003년 예정	-	-

■ 자체평가(Self assessment)

자체평가표에 의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Radar Chart로 표시하여 취약부문(weak-point)를 확인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한다.

1) 실행코드(Management Practice Code)별 평가팀 구성

2) 평가기준(Criteria)별로 아래 등급에 따라 평가

- NA(Not Applicable): 해당 조직에 적용되지 않음, 또는 관련이 없음.
- EV(Evaluation): 기존SHE 관행과 RC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평가하는 단계 (최초 self-assessment단계도 이에 포함됨)
- DP(Developing Plan): 평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IA(Implementing Action plan): 문제점 해결책 또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 되었으며, 사업을 개시하는 단계로 구축까지의 진도 또는 달성율이 100%미만이 이에 해당됨
- PP(Practice in Place): 실행이 완료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 RI(Re-evaluating Implementation): 지속적인 개선 단계, 해당 계획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단계

- 3) 각 평가기준별 평가근거자료 및 점수(0~5)기재
- 4) 실행코드별 점수계산 및 Radar Chart작성, 현재 수준 확인
- 5) 평가 결과 분석, 개선방안 준비 및 목표 설정
- 6) 개선방안 실시, 진도 및 목표 달성 확인

■ 자체평가결과(Self assessment result)



5. 향후 추진계획

RC프로그램은, 국내 대부분의 화학회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해오던 환경안전보건 프로그램을 고개, 이해 관계자 및 지역사회의 범주로 까지 확대 실시하여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스스로 약속하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지역주민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상을 정립할 것이다. 또한 관련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계간 공통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화학산업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NEWS UPDATE

한국RC협의회 제2기 정기총회 2001. 3. 7. 상의클럽

지난 3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는 한국RC협의회 제2기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사 대표 및 내외귀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기호 LG화학 사장을 제2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예·결산안 의결, 로고마크 기준 등을 승인하였다.

이 임 사

이정호 초대회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화학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환경안전문제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하였다.



신임회장 취임사

노기호 회장은 실행지침의 교류체계 및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회원사의 결속을 요청하였다.



실행지침 소위원회 초안 작성회의

실행지침 작성을 위해 조직된 실행위원회(위원장 허원준) 산하 4개 소위원회는 리더사가 주축이 되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실행지침 초안을 마련하였다. 지침이 완료된 공정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중 오염방지 소위원회(리더: 카프로)의 경우 지난 2. 29일 초안작성을 위한 실무회의와 4. 27일 검토회의 등을 거쳐 5월 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발표하였고, 비상대응 소위원회(리더: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리더사가 주축이 되어 5. 10일 준비회의 이후 5월 25일, 6월 22일 1, 2차 회의를 소집, 초안을 작성하였다.



KRCC 2001년 하반기 사업계획

하반기에는 4개 실행지침의 완료에 따라, 회원사 사업장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RC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점검하는 교육을 계속하고, RC관련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외국의 실제 사례를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침서의 발간 및 보고서 접수와 평가 시행

1. RC 지침서 개발
 - RC 추진체계, 지침별 실시방법에 대한 예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용어해설 등 수록.
2. 코드별 관리항목 및 체크리스트 발간
3. RC 추진 관련 검증 방법 및 기준 설정
4. 우수 추진사례 발굴

→ 로고마크 배포

1. 로고마크 사용 권한 부여 기준 제정.
2. 로고마크 부착 권유와 사용 방법 제시.
3. 로고마크 파일 및 배지 배포

→ 국제활동

1. RCLG2001 회의 참가(8.27-29, 멕시코)
2. APRC2001 회의 참가 (10.23-26, 인도네시아)
3. 해외 RC기관과의 정보교류

신입회원사 New Members



드루코리아(주)
Drew Korea Ltd.
대표 | 박응대 사장
CEO&President Park Eung-dae



엑손케미칼코리아
Exxon Chemical Korea
대표 | 윤영학 사장
CEO&President Yoon Young-h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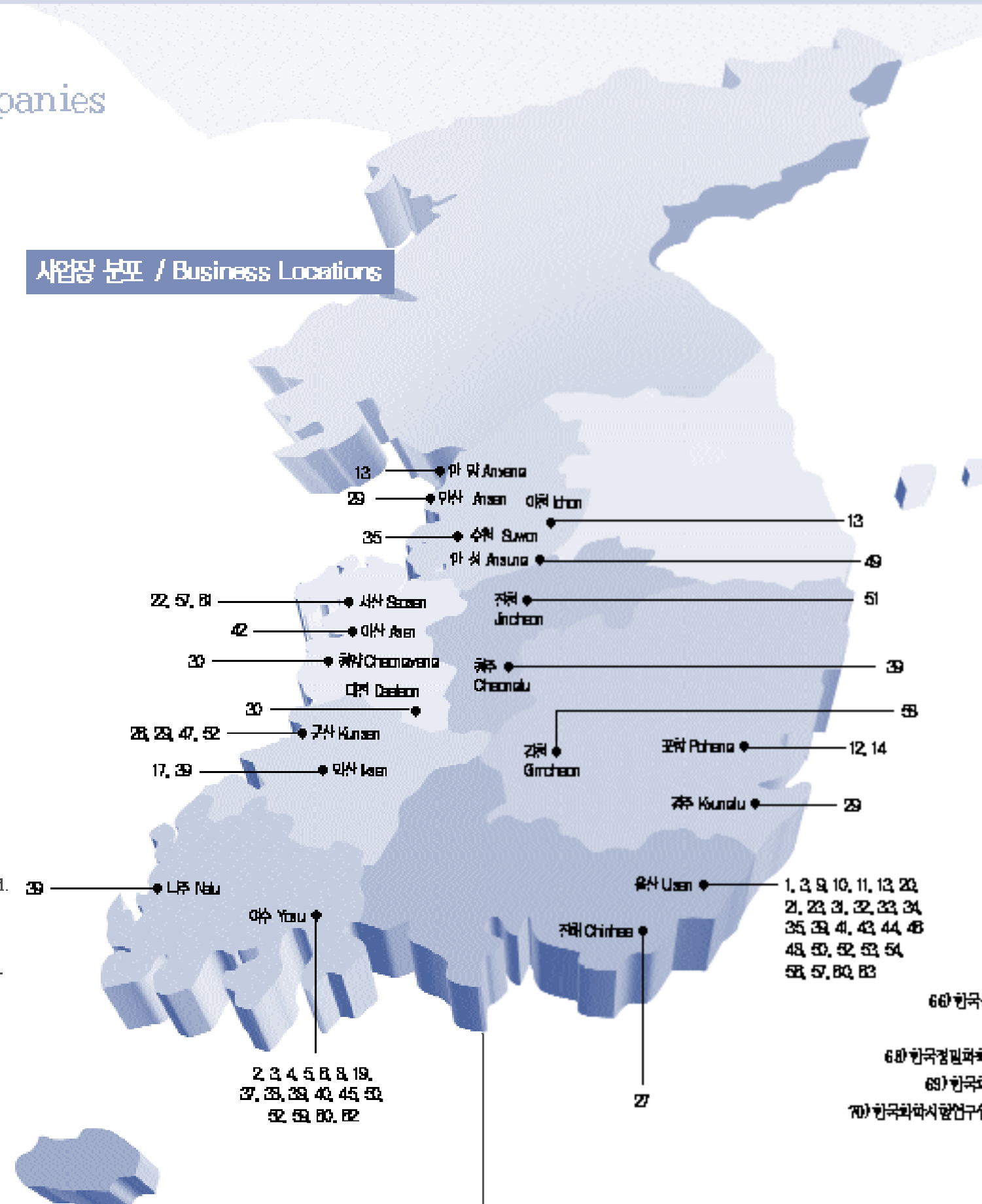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orea Chemicals Management Association
회장 | 김광련
Chairman Kim Kwang-ryun

회원사 Member Companies

[일반회원 / Full Members]

- 0) ㈜코참 Kohap Ltd.
- 1) 금호미쓰이화학㈜ Kumho Mitsui Chemicals, Inc.
- 2) 금호석유화학㈜ Korea Kumho Petrochemical Co., Ltd.
- 3) 금호폴리켄㈜ Kumho Polychem Co., Ltd.
- 4) 금호케미칼㈜ Kumho H&B Chemicals, Inc.
- 5) 남양화학㈜ Nanyang Chemical Corp.
- 6) 다이스타코리아㈜ Dystar Korea Ltd.
- 7) 대림산업㈜ Daelim Industrial Co., Ltd.
- 8) 대한유화공업㈜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Co., Ltd.
- 9) 동부한농화학㈜ Dongbu Hanung Chemical Co., Ltd.
- 10) 동서석유화학㈜ Tongseh Petrochemical Corp., Ltd.
- 11) 동양제철화학㈜ Dongyang Chemical Co., Ltd.
- 12) 유한회사 듀폰 Dupont(Korea) Inc.
- 13) 드루모리아㈜ Dray Korea Ltd.
- 14) (주)엘에스에스 Korea Elase Korea Co., Ltd.
- 15) 바이엘코리아㈜ Bayer Korea Ltd.
- 16) (주)에스디에프에프 Korea Ltd.
- 17) 비코모리아이엠텔윙리퍼드 BPC Korea Marketing Ltd.
- 18) 삼남석유화학㈜ Samnam Petrochemical Co., Ltd.
- 19) 삼성석유화학㈜ Samsung Petrochemical Co., Ltd.
- 20) 삼성정밀화학㈜ Samsung Fine Chemicals Co., Ltd.
- 21) 삼성중화학㈜ Samsung General Chemicals Co., Ltd.
- 22) 삼성BP화학㈜ Samsung-BP Chemicals Co., Ltd.
- 23) 셸리퍼엔터프라이즈스 Shell Pacific Enterprises Ltd.
- 24) 시바세콜스펙미칼스 Ciba Specialty Chemicals Korea Ltd.
- 25) 신오유화㈜ Shinho Petrochemical Co., Ltd.
- 26) (주)아토피나코리아 ATOPINA Korea Ltd.
- 27) 아치케미칼스파이스트리퍼드 Arch Chemicals Far East Ltd.
- 28) 알코노벨 Alcon Nobel Ltd.
- 29) 애경산업㈜ Aekyung Industrial Co., Ltd.
- 30) 애경유화㈜ Aekyung Petrochemical Co., Ltd.
- 31) 앵슈랜드코리아화학㈜ Ashland Korea Refractory Products
- 32) SK이비텍 SK Evertac Co., Ltd.
- 33) SK케미칼 SK Chemicals Co., Ltd.

사업장 분포 / Business Locations



- 36) 엑손케미칼코리아 Exxon Chemical Korea
- 37) LG석유화학㈜ LG Petrochemical Co., Ltd.
- 38) LG-Caltex 정유㈜ LG-Caltex Oil Corp.
- 39) (주)LG화학 LG Chemical Limited
- 40) 이천NCC㈜ Taechun NCC Co., Ltd.
- 41) 통산화학㈜ Tongsan Chemicals, Inc.
- 42) 우인화학㈜ U-In Chemical Co., Ltd.
- 43) 울산석유화학서비스㈜ Ulsan Petrochemical Service Corp.
- 44) 이수화학㈜ Issu Chemical Co., Ltd.
- 45) 제일모직㈜ Cheil Industries Inc.
- 46) (주)가르코 GARC O Corp.
- 47) (주)코셀 Cassel Co., Ltd.
- 48) 모우롱유화㈜ Molong Chemical Co., Ltd.
- 49) 클라리언트코리아㈜ Clarient Korea Ltd.
- 50) 한국다우케미칼㈜ Dow Chemical Korea Ltd.
- 51) 한국다우코닝㈜ Dow Corning Korea Ltd.
- 52) 한국바스프㈜ BASF Company Ltd.
- 53) 한국알콜산업㈜ Korea Alcohol Industrial Co., Ltd.
- 54) 한국에어프로덕트㈜ Air Products Korea, Inc.
- 55) 한국이스트만화학㈜ Eastman Chemical Korea Ltd.
- 56) 한국케미칼케미칼㈜ Kembra Chemicals Korea Corp.
- 57) 한국폴리올㈜ Korea Polyol Co., Ltd.
- 58) 한국하플레스화학㈜ Hercules Korea Chemical Co., Ltd.
- 59) 한국화성케미칼㈜ Korea Fine Chemical Co., Ltd.
- 60) 한화석유화학㈜ Hanwha Chemical Corp.
- 61) 현대석유화학㈜ Hyundai Petrochemical Co., Ltd.
- 62) 호남석유화학㈜ Honam Petrochemical Corp.
- 63) (주)효성 Hyosung Corp.

[준회원 / Associate Members]

- 64) 대한석유협회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65) 한국비료공업협회 Korea Fertilizer Industry Association
- 66)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 67) 한국소다공업협회 Korea Soda Industry Association
- 68)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 69) 한국화학융합재단협회 Korea Chemicals Management Association
- 70)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for Chemical Industry
- 71) (주)화학경제연구원 Chemical Market Research Institute